

- 문 1. 다음은 회계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고서>

2019년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모두 64건으로 2018년보다 29건 감소하였다.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17년 11월 규정 개정 후에는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2018년에는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111.4%)하였다. 2019년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1.2% 감소하였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최대 32건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2017년 11월 포상금 규정 개정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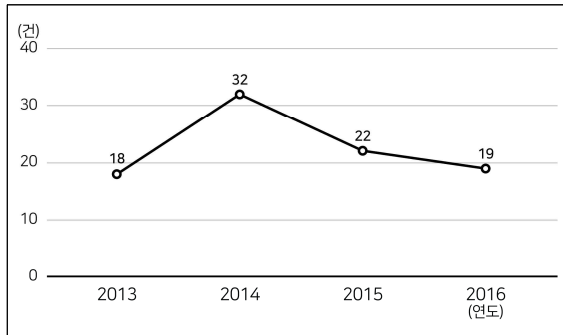
<보 기>

가. 회계부정행위 신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	44	93	64
전년 대비 증가율	—	111.4	-31.2

나. 연도별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 추이(2013 ~ 2016년)



다.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최대 포상금 규정

(단위: 만 원)

구분 \ 시점		최대 포상금 한도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
2017년 11월 규정 개정	개정 후	50,000	100,000
	개정 전	5,000	10,000

라.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만 원)

구분 \ 연도	2008 ~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지급 건수	6	2	2	1	2	13
지급액	5,010	2,740	3,610	330	11,940	23,630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 문 2. 다음 <표>는 ‘갑’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공종의 공법별 공사기간 및 항목별 공사비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총공사비를 최소화하도록 공법을 적용할 때, 총공사기간은?

<표> 공종의 공법별 공사기간 및 항목별 공사비

(단위: 개월, 억 원)

공종 \ 공법	구분	공사기간	항목별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토공사	A	4	4	6	4
	B	3	7	5	3
	C	3	5	5	3
골조공사	D	12	30	20	14
	E	14	24	20	15
	F	15	24	24	16
마감공사	G	6	50	30	10
	H	7	50	24	12

<조 건>

- 공종, 공법, 항목별 공사비는 각각 제시된 3가지, 8종류, 3항목만 있음.
- 공사는 세 가지 공종을 모두 포함하고, 공종별로 한 종류의 공법만을 적용함.
- 항목별 공사비는 해당 공법의 공사기간 동안 소요되는 해당 항목의 총비용임.
- 총공사기간은 공종별로 적용한 공법의 공사기간의 합이고, 총공사비는 공종별로 적용한 공법의 항목별 공사비의 총합임.

- ① 22개월
 ② 23개월
 ③ 24개월
 ④ 25개월
 ⑤ 26개월

- 문 3. 다음 <표>는 2017 ~ 2019년 ‘갑’대학의 장학금 유형(A ~ E)별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2017 ~ 2019년 ‘갑’대학의 장학금 유형별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학기	장학금 구분	장학금 유형	A	B	C	D	E
2017년	1학기	장학생 수	112	22	66	543	2,004
		장학금 총액	404	78	230	963	2,181
	2학기	장학생 수	106	26	70	542	1,963
		장학금 총액	379	91	230	969	2,118
2018년	1학기	장학생 수	108	21	79	555	1,888
		장학금 총액	391	74	273	989	2,025
	2학기	장학생 수	112	20	103	687	2,060
		장학금 총액	404	70	355	1,216	2,243
2019년	1학기	장학생 수	110	20	137	749	2,188
		장학금 총액	398	70	481	1,330	2,379
	2학기	장학생 수	104	20	122	584	1,767
		장학금 총액	372	70	419	1,039	1,904

※ ‘갑’대학의 학기는 매년 1학과 2학기만 존재함.

—<보 기>—

- ㄱ. 2017 ~ 2019년 동안 매학기 장학생 수가 증가하는 장학금 유형은 1개이다.
 ㄴ. 2018년 1학기에 비해 2018년 2학기에 장학생 수와 장학금 총액이 모두 증가한 장학금 유형은 4개이다.
 ㄷ. 2019년 2학기 장학생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장학금 유형은 B이다.
 ㄹ. E 장학금 유형에서 장학생 수와 장학금 총액이 가장 많은 학기는 2019년 1학기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문 4. 다음 <표>는 2019년 ‘갑’회사의 지점(A ~ E)별 매출 관련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회사의 지점별 매출 관련 현황
(단위: 억 원, 명)

지점 구분	A	B	C	D	E	전체
매출액	10	21	18	10	12	71
목표매출액	15	26	20	13	16	90
직원수	5	10	8	3	6	32

$$\text{※ 목표매출액 달성률(\%)} = \frac{\text{매출액}}{\text{목표매출액}} \times 100$$

—<보 기>—

- ㄱ. 직원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지점은 D이다.
 ㄴ. 목표매출액 달성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C이다.
 ㄷ. 지점 매출액이 5개 지점 매출액의 평균을 초과하는 지점은 3곳이다.
 ㄹ. 5개 지점의 매출액이 각각 20%씩 증가한다면, 전체 매출액은 전체 목표매출액을 초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문 5. 다음 <표>는 A ~ C가 참가한 사격게임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1 ~ 5라운드 후 A의 총적중 횟수의 최솟값과 C의 총적중 횟수의 최댓값의 차이를 구하면?

<표> 참가자의 라운드별 적중률 현황
(단위: %)

참가자 \ 라운드	1	2	3	4	5
A	20.0	()	60.0	37.5	()
B	40.0	62.5	100.0	12.5	12.5
C	()	62.5	80.0	()	62.5

※ 사격게임 결과는 적중과 미적중으로만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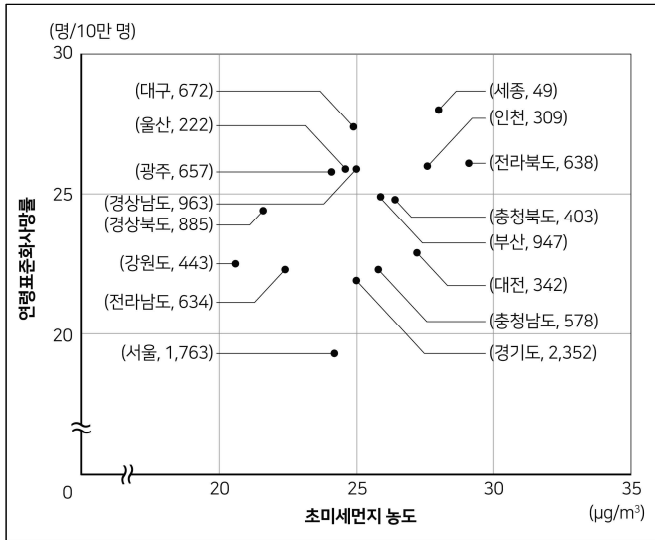
—<조 건>—

- 1, 3라운드에는 각각 5발을 발사하고, 2, 4, 5라운드에는 각각 8발을 발사함.
 ○ 각 참가자의 라운드별 적중 횟수는 최소 1발부터 최대 5발까지임.
 ○ 참가자별로 1발만 적중시킨 라운드 횟수는 2회 이하임.

- ① 10
 ② 11
 ③ 12
 ④ 13
 ⑤ 14

- 문 6. 다음 <그림>은 2015년 16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연령표준화 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그림>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연령표준화사망률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



- ※ 1) (지역, N)은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N 명임을 의미함.
 2)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령 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을 의미함.

<보 기>

- ㄱ.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
 ㄴ. 연령표준화사망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는 적다.
 ㄷ.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는 충청북도보다 많다.
 ㄹ. 대구는 부산보다 연령표준화사망률은 높지만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는 적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문 7. 다음 <표>는 2018년과 2019년 14개 지역에 등록된 5톤 미만 어선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18년과 2019년 14개 지역에 등록된 5톤 미만 어선 수 (단위: 척)

연도	지역	톤급				
		1톤 미만	1톤 이상 2톤 미만	2톤 이상 3톤 미만	3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5톤 미만
2019	부산	746	1,401	374	134	117
	대구	6	0	0	0	0
	인천	98	244	170	174	168
	울산	134	378	83	51	32
	세종	8	0	0	0	0
	경기	910	283	158	114	118
	강원	467	735	541	296	179
	충북	427	5	1	0	0
	충남	901	1,316	743	758	438
	전북	348	1,055	544	168	184
	전남	6,861	10,318	2,413	1,106	2,278
	경북	608	640	370	303	366
	경남	2,612	4,548	2,253	1,327	1,631
	제주	123	145	156	349	246
2018	부산	793	1,412	351	136	117
	대구	6	0	0	0	0
	인천	147	355	184	191	177
	울산	138	389	83	52	33
	세종	7	0	0	0	0
	경기	946	330	175	135	117
	강원	473	724	536	292	181
	충북	434	5	1	0	0
	충남	1,036	1,429	777	743	468
	전북	434	1,203	550	151	188
	전남	7,023	10,246	2,332	1,102	2,297
	경북	634	652	372	300	368
	경남	2,789	4,637	2,326	1,313	1,601
	제주	142	163	153	335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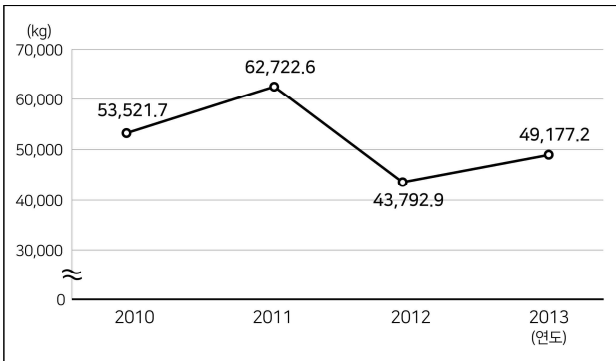
- ① 2019년 경기의 5톤 미만 어선 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10% 미만이다.
 ② 2019년 대구를 제외한 각 지역에서 '1톤 미만' 어선 수는 전년보다 감소한다.
 ③ 2018년 대구, 세종, 충북을 제외한 각 지역에서 '1톤 이상 2톤 미만'부터 '4톤 이상 5톤 미만'까지 톤급이 증가할수록 어선 수는 감소한다.
 ④ 2018년과 2019년 모두 '1톤 이상 2톤 미만' 어선 수는 충남이 세 번째로 크다.
 ⑤ 2018년과 2019년 모두 '1톤 미만' 어선 수 대비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 수의 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이다.

문 8. 다음 <표>는 2008 ~ 2018년 ‘갑’국의 황산화물 배출권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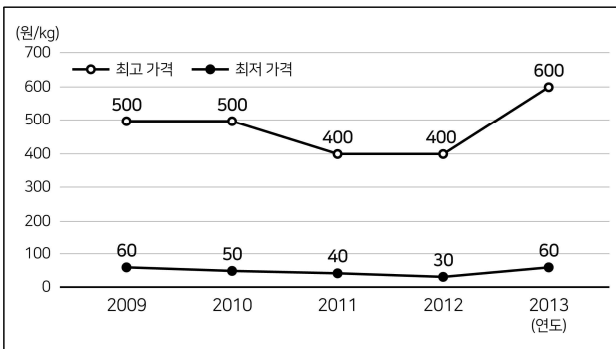
<표> 2008 ~ 2018년 ‘갑’국의 황산화물 배출권 거래 현황
(단위: 건, kg, 원/kg)

연도	전체		무상거래		유상거래				
	거래 건수	거래량	거래 건수	거래량	거래 건수	거래량	거래가격		
							최고	최저	평균
2008	10	115,894	3	42,500	7	73,394	1,000	30	319
2009	8	241,004	4	121,624	4	119,380	500	60	96
2010	32	1,712,694	9	192,639	23	1,520,055	500	50	58
2011	25	1,568,065	6	28,300	19	1,539,765	400	10	53
2012	32	1,401,374	7	30,910	25	1,370,464	400	30	92
2013	59	2,901,457	5	31,500	54	2,869,957	600	60	180
2014	22	547,500	1	2,000	21	545,500	500	65	269
2015	12	66,200	5	22,000	7	44,200	450	100	140
2016	10	89,500	3	12,000	7	77,500	500	150	197
2017	20	150,966	5	38,100	15	112,866	160	100	124
2018	28	143,324	3	5,524	25	137,800	250	74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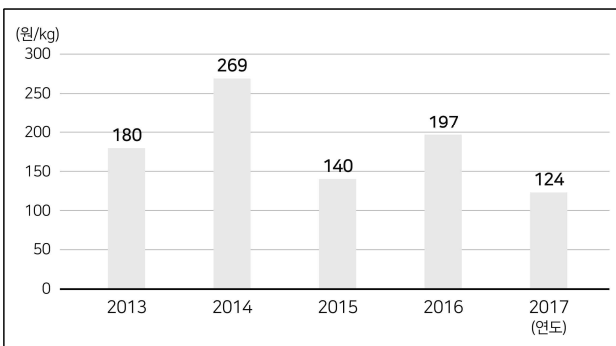
① 2010 ~ 2013년 연도별 전체 거래의 건당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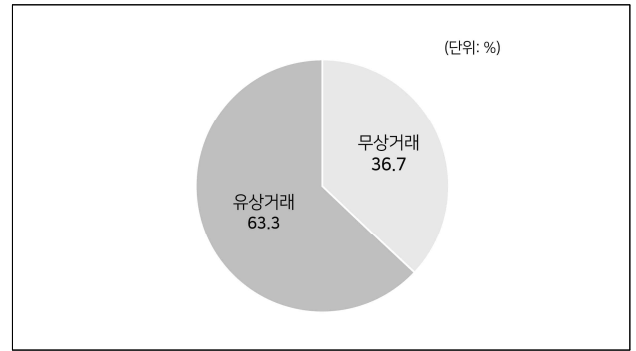
② 2009 ~ 2013년 유상거래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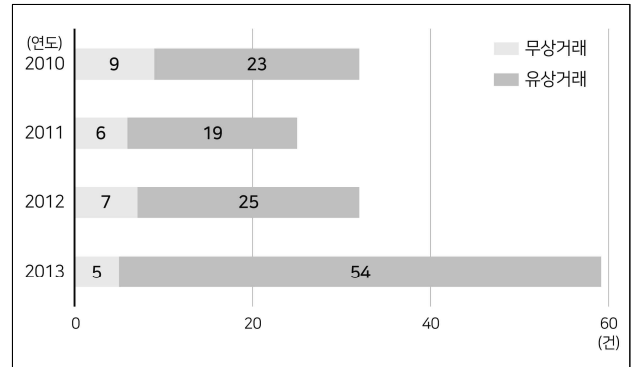
③ 2013 ~ 2017년 유상거래 평균 가격



④ 2008년 전체 거래량 구성비



⑤ 2010 ~ 2013년 무상거래 건수와 유상거래 건수



- 문 9. 다음 <표>는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탈모 증상 경험 여부와 탈모 증상 경험자의 탈모 증상 완화 시도 방법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탈모 증상 경험 여부

구분		응답자 수 (명)	탈모 증상 경험 여부(%)		
			있음	없음	
성별	남성	743	28.8	71.2	
	여성	757	15.2	84.8	
연령대	20대	259	46	95.4	
	30대	253	12.6	87.4	
	40대	295	21.4	78.6	
	50대	301	25.6	74.4	
	60대	392	37.0	63.0	
성별 · 연령대	남성	20대	136	5.1	94.9
		30대	130	16.2	83.8
		40대	150	30.0	70.0
		50대	151	35.8	64.2
		60대	176	49.4	50.6
	여성	20대	123	4.1	95.9
		30대	123	8.9	91.1
		40대	145	12.4	87.6
		50대	150	15.3	84.7
		60대	216	26.9	73.1

※ 1) 무응답과 복수응답은 없음.

2)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2> 탈모 증상 경험자의 탈모 증상 완화 시도 여부 및 방법

구분		응답자 수 (명)	탈모 증상 완화 시도 방법(%)					시도 하지 않음 (%)
			모발 관리 제품 사용	민간 요법	치료제 구입	병원 진료	미용실 탈모 관리	
성별	남성	214	38.8	14.0	9.8	8.9	4.2	49.1
	여성	115	45.2	7.0	2.6	4.3	11.3	44.3
연령대	20대	12	50.0	0.0	16.7	16.7	16.7	0.0
	30대	32	62.5	12.5	6.3	9.4	9.4	25.0
	40대	63	52.4	7.9	6.3	12.7	7.9	36.5
	50대	77	46.8	15.6	10.4	5.2	10.4	39.0
	60대	145	26.2	11.7	6.2	4.1	2.8	62.8
부모의 탈모경험 여부	있음	236	47.0	14.8	8.1	7.2	8.9	41.1
	없음	93	24.7	4.3	7.5	7.5	1.1	62.4
탈모 증상의 심각성	심각함	150	45.3	16.0	13.3	13.3	10.0	34.0
	심각하지 않음	179	36.9	7.8	2.8	2.2	2.8	58.1

※ 1) 무응답은 없으며, 탈모 증상 완화 시도 방법에 대한 복수응답을 허용함.

2)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① 남녀 각각 연령대가 높을수록 탈모 증상 경험자의 비율도 높다.
- ② 탈모 증상 경험자 중 탈모 증상 완화 시도 방법으로 미용실 탈모 관리를 받았다고 한 응답자의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 ③ 탈모 증상 경험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탈모 증상 완화를 시도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
- ④ 탈모 증상 경험자 중 부모의 탈모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70 % 이상이다.
- ⑤ 탈모 증상이 심각하다고 한 응답자 중 부모의 탈모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57명 이상이다.

- 문 10. 다음 <표>는 도입과 출산을 통한 반달가슴곰 복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도입과 출산을 통한 반달가슴곰 복원 현황

(단위: 개체)

구분		생존			폐사	전체	폐사원인
			자연적응	학습장			
도입처	러시아	13	5	8	9	22	자연사: 8 울무: 3 농약: 1 기타: 3
	북한	3	2	1	4	7	
	중국	3	0	3	1	4	
	서울대공원	6	5	1	1	7	
	청주동물원	1	0	1	0	1	
	소계	26	12	14	15	41	
출산방식	자연출산	41	39	2	5	46	자연사: 4 울무: 2
	증식장출산	7	4	3	1	8	
	소계	48	43	5	6	54	
계		74	55	19	21	95	—

※ 1) 도입처(출산방식)별 자연적응률(%)

$$= \frac{\text{도입처(출산방식)별 자연적응 반달가슴곰 수}}{\text{도입처(출산방식)별 전체 반달가슴곰 수}} \times 100$$

2) 도입처(출산방식)별 생존율(%)

$$= \frac{\text{도입처(출산방식)별 생존 반달가슴곰 수}}{\text{도입처(출산방식)별 전체 반달가슴곰 수}} \times 100$$

3) 도입처(출산방식)별 폐사율(%)

$$= \frac{\text{도입처(출산방식)별 폐사 반달가슴곰 수}}{\text{도입처(출산방식)별 전체 반달가슴곰 수}} \times 100$$

—<보 기>—

- ㄱ. 도입처가 서울대공원인 반달가슴곰의 자연적응률은 자연출산 반달가슴곰의 자연적응률보다 낮다.
 ㄴ. 자연출산 반달가슴곰의 생존율은 90 %를 넘는다.
 ㄷ. 반달가슴곰의 폐사율은 자연출산이 증식장출산보다 낮다.
 ㄹ. 도입처가 러시아인 반달가슴곰 중 적어도 두 개체의 폐사원인은 ‘자연사’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11. 다음은 세계 및 국내 드론 산업 현황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자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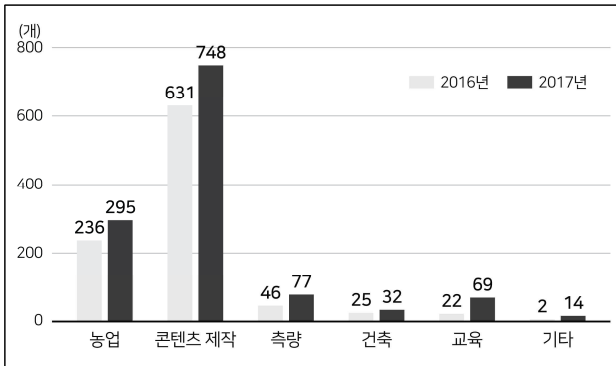
—<보고서>—

세계의 드론 산업 시장은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2013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는 유럽 시장보다 오히려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점유율이 더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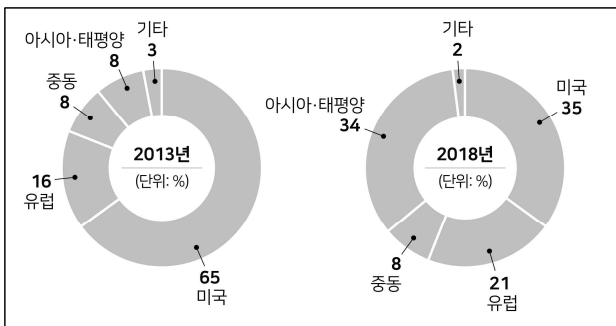
2017년 국내 드론 활용 분야별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농업과 콘텐츠 제작 분야의 사업체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사업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에 있어서는 교육 분야가 농업과 콘텐츠 제작 분야보다 각각 높았다. 2017년 국내 드론 활용 산업의 주요 관리 항목을 2013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항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조종자격 취득자수, 장치신고 대수, 드론 활용 사업체수 순이다.

우리나라는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R&D 예산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15~2017년 기술 분야별로 정부 R&D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기반기술과 응용서비스기술의 예산 비중의 합은 매년 65% 이상이다.

① 2016~2017년 국내 드론 활용 분야별 사업체수 현황



② 2013년과 2018년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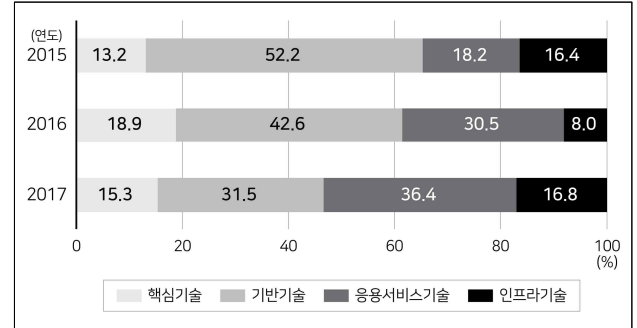


③ 2015~2017년 국내 드론 산업 관련 민간 R&D 기업규모별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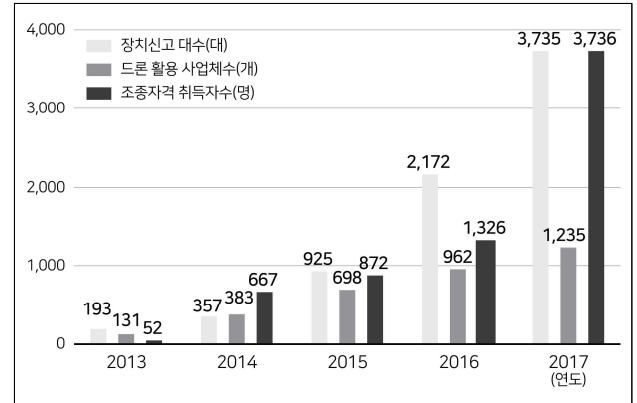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대기업	2,138	10,583	11,060
중견기업	4,122	3,769	1,280
중소기업	11,500	29,477	43,312

④ 2015~2017년 국내 드론 산업 관련 기술 분야별 정부 R&D 예산 비중 현황



⑤ 2013~2017년 국내 드론 활용 산업의 주요 관리 항목별 현황



문 12. 다음 <표>는 A 대학 재학생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A 대학 재학생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명, 점)

항목 \ 학년	응답인원	전공	교양	시설	기자재	행정
1	2,374	3.90	3.70	3.78	3.73	3.63
2	2,349	3.95	3.75	3.76	3.71	3.64
3	2,615	3.96	3.74	3.74	3.69	3.66
4	2,781	3.94	3.77	3.75	3.70	3.65

※ 점수는 5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보 기>—

- ㄱ. '시설'과 '기자재' 항목은 응답인원이 많은 학년일수록 항목별 교육 만족도가 높다.
 ㄴ. 항목별로 교육 만족도가 높은 순서대로 학년을 나열할 때, 순서가 일치하는 항목들이 있다.
 ㄷ. 학년이 높아질수록 항목별 교육 만족도가 높아지는 항목은 1개이다.
 ㄹ. 각 학년에서 교육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모두 '전공'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문 13. 다음 <표>는 2017 ~ 2019년 ‘갑’국 A ~ D 지역의 1인 1일당 단백질 섭취량과 지역별 전체 인구에 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지역별 1인 1일당 단백질 섭취량
(단위: g)

지역 \ 연도	2017	2018	2019
A	50	60	75
B	100	100	110
C	100	90	80
D	50	50	50

※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만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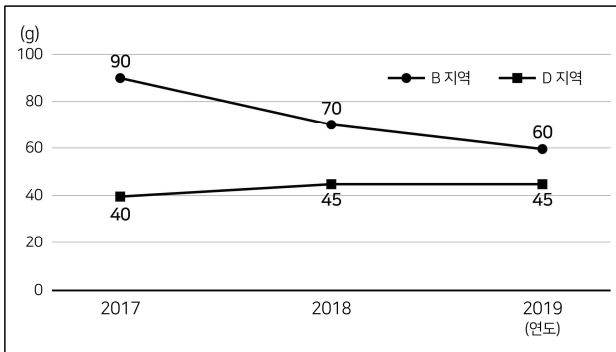
<표 2> 지역별 1인 1일당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
(단위: g)

지역 \ 연도	2017	2018	2019
A	25	25	25
B	10	30	50
C	20	20	20
D	10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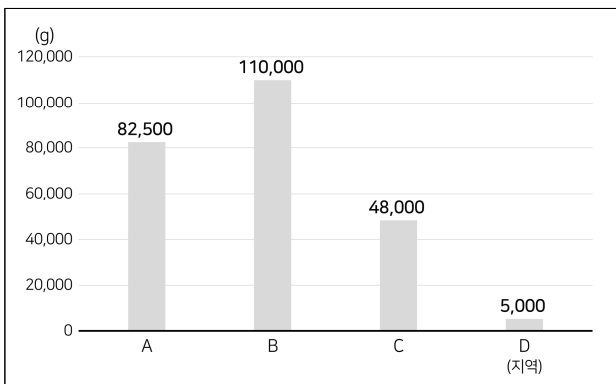
<표 3> 지역별 전체 인구
(단위: 명)

지역 \ 연도	2017	2018	2019
A	1,000	1,000	1,100
B	1,000	1,000	1,000
C	800	700	600
D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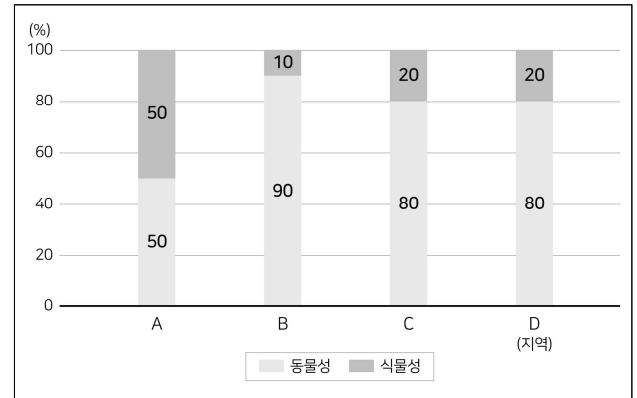
- ① 2017 ~ 2019년 B와 D 지역의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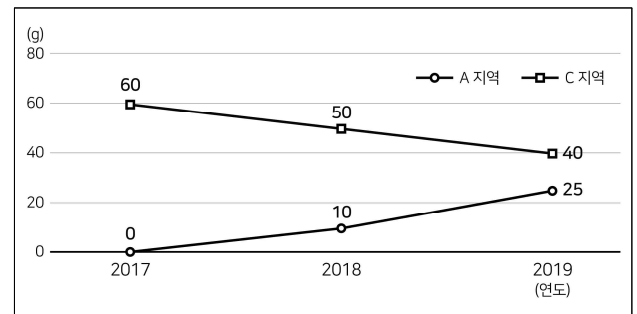
- ② 2019년 지역별 1인 단백질 총섭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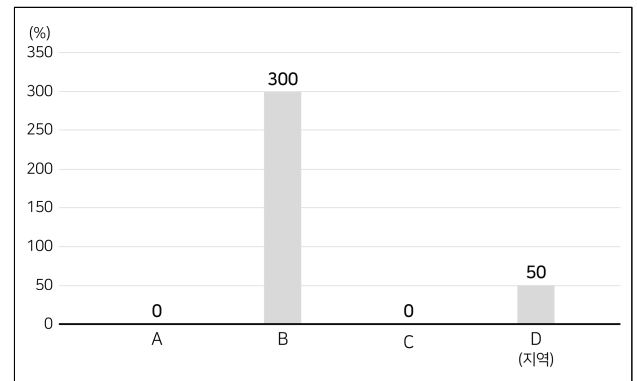
- ③ 2017년 지역별 1인 1일당 단백질 섭취량 구성비



- ④ 2017 ~ 2019년 A와 C 지역의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과 1인 1일당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차이



- ⑤ 지역별 2017년 대비 2018년 1인 1일당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 증감률



문 14. 다음 <표>는 2016 ~ 2019년 ‘갑’국의 방송통신 매체별 광고매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2016 ~ 2019년 방송통신 매체별 광고매출액
(단위: 억 원)

매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세부 매체				
방송	지상파TV	15,517	14,219	12,352	12,310
	라디오	2,530	2,073	1,943	1,816
	지상파DMB	53	44	36	35
	케이블PP	18,537	17,130	16,646	()
	케이블SO	1,391	1,408	1,275	1,369
	위성방송	480	511	504	503
	소계	38,508	35,385	32,756	31,041
온라인	인터넷(PC)	19,092	20,554	19,614	19,109
	모바일	28,659	36,618	45,678	54,781
	소계	47,751	57,172	65,292	73,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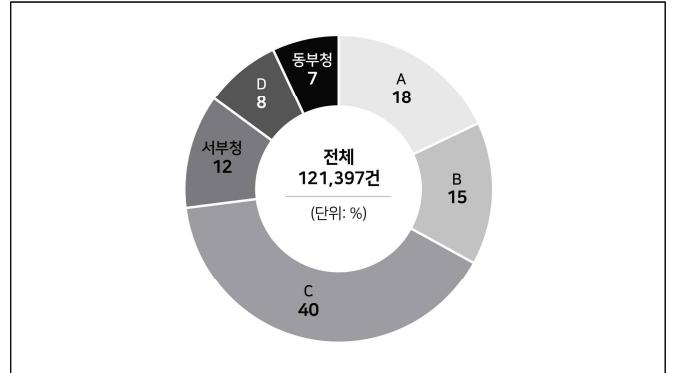
— <보 기> —

- ㄱ. 2017 ~ 2019년 동안 모바일 광고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30% 이상이다.
 ㄴ. 2017년의 경우, 방송 매체 중 지상파TV 광고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온라인 매체 중 인터넷(PC) 광고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다.
 ㄷ. 케이블PP의 광고매출액은 매년 감소한다.
 ㄹ. 2016년 대비 2019년 광고매출액 증감률이 가장 큰 세부 매체는 모바일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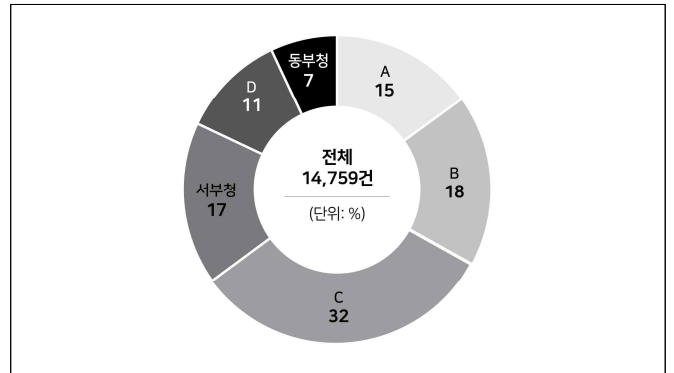
문 15. 다음 <그림>은 ‘갑’국 6개 지방청 전체의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건수의 지방청별 구성비에 관한 자료이다. <그림>과 <조건>을 근거로 B와 D에 해당하는 지방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림 1> 부동산 압류건수의 지방청별 구성비



※ 지방청은 동부청, 서부청, 남부청, 북부청, 남동청, 중부청으로만 구성됨.

<그림 2> 자동차 압류건수의 지방청별 구성비



— <조 건> —

- 자동차 압류건수는 중부청이 남동청의 2배 이상이다.
 ○ 남부청과 북부청의 부동산 압류건수는 각각 2만 건 이하이다.
 ○ 지방청을 부동산 압류건수와 자동차 압류건수가 큰 값부터 순서대로 각각 나열할 때, 순서가 동일한 지방청은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이다.

B

D

- | | |
|-------|-----|
| ① 남동청 | 남부청 |
| ② 남동청 | 북부청 |
| ③ 남부청 | 북부청 |
| ④ 북부청 | 남부청 |
| ⑤ 중부청 | 남부청 |

문 16. 다음 <표>는 조사연도별 국세 및 국세청세수와 국세청세수 징세비 및 국세청 직원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국세 및 국세청세수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조사연도	국세	국세청세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2	1,039,678	966,166	876,844	89,322
2007	1,614,591	1,530,628	1,479,753	50,875
2012	2,030,149	1,920,926	1,863,469	57,457
2017	2,653,849	2,555,932	2,499,810	56,122

<표 2> 국세청세수 징세비 및 국세청 직원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조사연도	징세비	국세청 직원수
2002	817,385	15,158
2007	1,081,983	18,362
2012	1,339,749	18,797
2017	1,592,674	19,131

<보고서>

2017년 국세청세수는 255.6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22.3조 원 증가하였다. 세목별로는 소득세(76.8조 원), 부가가치세(67.1조 원), 법인세(59.2조 원) 순으로 높다. 세무서별로 살펴보면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1.6조 원), 2위는 수영세무서(10.9조 원)이다. 2017년 기준 국세청세수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서, 2002년 기준 9.2%와 비교해 감소하였다. 국세는 국세청세수에 관세청 소관분과 지방자치단체 소관분을 합한 금액으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국세 대비 국세청세수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02년 기준 92.9%였던 국세 대비 국세청세수의 비율은 2017년에는 96.3%로 3.0%p 이상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 직원 1인당 국세청세수는 2007년 8,336백만 원, 2017년 13,360백만 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 국세청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17년 기준 0.62원으로 2002년 0.85원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다. 2017년 현재 19,131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청 직원수는 2002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였다.

<보 기>

- ㄱ. 2003 ~ 2016년의 국세 및 국세청세수
 ㄴ. 2003 ~ 2016년의 관세청 소관분
 ㄷ. 2017년의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ㄹ. 2002 ~ 2017년의 국세청 직원 1인당 국세청세수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17. 다음 <표>는 ‘가’ 곤충도감에 기록된 분류군별 경제적 중요도와 ‘갑 ~ 병’국의 종의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분류군별 경제적 중요도와 ‘갑 ~ 병’국의 종의 수

(단위: 종)

분류군	경제적 중요도	국가			전체
		갑	을	병	
무시류	C	303	462	435	11,500
고시류	C	187	307	1,031	8,600
매뚜기목	A	297	372	1,161	34,300
강도래목	C	47	163	400	2,000
다듬이벌레목	B	12	83	280	4,400
털이목	C	4	150	320	2,800
이목	C	22	32	70	500
총채벌레목	A	87	176	600	5,000
노린재목	S	1,886	2,744	11,300	90,000
풀잠자리목	A	52	160	350	6,500
딱정벌레목	S	3,658	9,992	30,000	350,000
부채벌레목	C	7	22	60	300
벌목	S	2,791	4,870	17,400	125,000
밀들이목	C	11	44	85	600
벼룩목	C	40	72	250	2,500
파리목	S	1,594	4,692	18,000	120,000
날도래목	C	202	339	975	11,000
나비목	S	3,702	5,057	11,000	150,000

$$\text{※ 해당 국가의 분류군별 종 다양성(\%)} = \frac{\text{해당 국가의 분류군별 종의 수}}{\text{분류군별 전체 종의 수}} \times 100$$

<보 기>

- ㄱ. 경제적 중요도가 S인 분류군 중, ‘갑’국에서 종의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분류군은 노린재목이다.
 ㄴ. 경제적 중요도가 A인 분류군 중, ‘을’국에서 종의 수가 두 번째로 많은 분류군은 총채벌레목이다.
 ㄷ. 경제적 중요도가 C인 분류군 중, ‘갑’국의 분류군별 종 다양성이 가장 낮은 분류군은 털이목이다.
 ㄹ. 경제적 중요도가 S인 분류군 중, ‘병’국의 분류군별 종 다양성이 10% 이상인 분류군은 4개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문 18. 다음 <표>는 ‘갑’공기기업의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2개 사업(A, B) 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1> A와 B사업의 평가 항목별 원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 항목	A 사업	B 사업
사업적 가치	경영전략 달성 기여도	80	90
	수익창출 기여도	80	90
공적 가치	정부정책 지원 기여도	90	80
	사회적 편익 기여도	90	80
참여 여건	전문인력 확보 정도	70	70
	사내 공감대 형성 정도	70	70

※ 평가 항목별 원점수는 100점 만점임.

<표 2> 평가 항목별 가중치

구분	평가 항목	가중치
사업적 가치	경영전략 달성 기여도	0.2
	수익창출 기여도	0.1
공적 가치	정부정책 지원 기여도	0.3
	사회적 편익 기여도	0.2
참여 여건	전문인력 확보 정도	0.1
	사내 공감대 형성 정도	0.1
계		1.0

—<조 건>—

-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각 사업의 최종 점수는 평가 항목별 원점수에 해당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모두 합하여 산정함.
- A와 B사업 중 최종 점수가 더 높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최종 선정함.

—<보 기>—

- ㄱ. 각 사업의 6개 평가 항목 원점수의 합은 A 사업과 B 사업이 같다.
- ㄴ. ‘공적 가치’에 할당된 가중치의 합은 ‘참여 여건’에 할당된 가중치의 합보다 작고, ‘사업적 가치’에 할당된 가중치의 합보다 크다.
- ㄷ. ‘갑’공기기업은 A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최종 선정한다.
- ㄹ. ‘정부정책 지원 기여도’ 가중치와 ‘수익창출 기여도’ 가중치를 서로 바꾸더라도 최종 선정되는 신규 사업은 동일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 문 19. 다음 <표>는 2016 ~ 2019년 ‘갑’조사기관이 발표한 이미지 분야 및 실체 분야 국가브랜드 상위 10개국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A ~ C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16 ~ 2019년 국가브랜드 상위 10개국

순위	연도 분야	2016	2017	2018	2019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실체
1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미국
2		일본	캐나다	독일	독일	독일
3		스웨덴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4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5		독일	영국	영국	스위스	일본
6		미국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7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호주
8		캐나다	스웨덴	호주	프랑스	스웨덴
9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호주	네덜란드
10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 1) 국가브랜드는 이미지 분야와 실체 분야로 나누어 각각 순위가 결정되며 공동 순위는 없음.

2) 조사대상 국가는 매년 동일함.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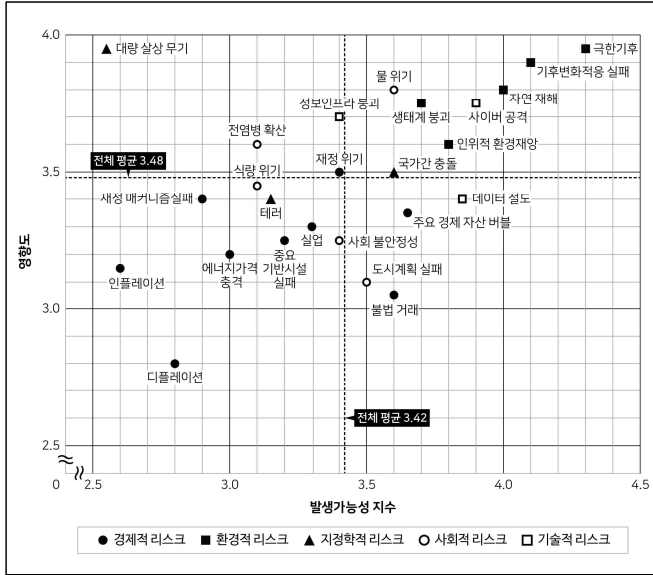
최근 국가브랜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브랜드 순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갑’조사기관이 발표한 2016 ~ 2019년 이미지 분야 및 실체 분야 국가브랜드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의 이미지 분야 순위는 매년 A 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에 연도별 이미지 분야 순위가 모두 상위 10위 이내에 든 국가는 총 8개국이다.

2019년 이미지 분야 순위가 상위 10위 이내에 든 국가는 모두 2019년 실체 분야 순위도 상위 10위 이내에 들었다. 2019년 이미지 분야 순위 상위 10개국 중 2019년 이미지 분야 순위와 실체 분야 순위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B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미지 분야 순위 상위 10개국 중 2016년에 비해 2017년 이미지 분야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총 C 개국이었고, 특히 캐나다의 높은 순위 상승이 눈에 띈다. 2019년에는 2018년과 비교하여 이미지 분야 순위가 하락한 국가가 많았으나, 네덜란드의 경우 이미지 분야 순위가 상승하여 주목받고 있다.

- | | A | B | C |
|------|---|-----|---|
| ① 상승 | | 캐나다 | 6 |
| ② 상승 | | 프랑스 | 5 |
| ③ 상승 | | 프랑스 | 6 |
| ④ 하락 | | 스웨덴 | 5 |
| ⑤ 하락 | | 캐나다 | 6 |

문 20. 다음 <그림>은 W 경제포럼이 발표한 25개 글로벌 리스크의 분류와 영향도 및 발생가능성 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글로벌 리스크의 분류와 영향도 및 발생가능성 지수



- ① 모든 환경적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지수 대비 영향도의 비는 1 이상이다.
- ② 영향도와 발생가능성 지수의 차이가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는 '대량 살상 무기'이다.
- ③ '에너지가격 충격'의 영향도 대비 발생가능성 지수의 비는 1 이하이다.
- ④ 영향도와 발생가능성 지수가 각각의 '전체 평균' 이하인 경제적 리스크의 수는 영향도나 발생가능성 지수가 각각의 '전체 평균' 이상인 경제적 리스크의 수보다 많다.
- ⑤ 모든 환경적 리스크는 영향도와 발생가능성 지수가 각각의 '전체 평균' 이상이다.

문 21. 다음 <표>는 '갑'국의 멸종위기종 지정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멸종위기종 지정 현황

(단위: 종)

분류 \ 지정	멸종위기종	멸종위기 I 급	멸종위기 II 급
포유류	20	12	8
조류	63	14	49
양서·파충류	8	2	6
어류	27	11	16
곤충류	26	6	20
무척추동물	32	4	28
식물	88	11	77
전체	264	60	204

※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 I 급과 멸종위기 II 급으로 구분함.

- ① 멸종위기종으로 '포유류'만 10종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전체 멸종위기종 중 '포유류'의 비율은 10% 이상이다.
- ② 각 분류에서 멸종위기종 중 멸종위기 I 급의 비율은 '무척추동물'과 '식물'이 동일하다.
- ③ 각 분류의 멸종위기종에서 5종씩 지정을 취소한다면, 전체 멸종위기종 중 '조류'의 비율은 감소한다.
- ④ 각 분류에서 멸종위기종 중 멸종위기 II 급의 비율은 '조류'가 '양서·파충류'보다 높다.
- ⑤ '포유류'를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각 분류의 멸종위기종 중 멸종위기 II 급의 비율은 각 분류의 멸종위기종 중 멸종위기 I 급의 비율보다 높다.

문 22. 다음 <조사개요>와 <표>는 A 기관 5개 지방청에 대한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19년 7월 28일 ~ 2019년 8월 8일
- 조사방법: 전화 조사
- 조사목적: A 기관 5개 지방청 외부고객의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응답자 수: 총 101명(조사항목별 무응답은 없음)
- 조사항목: 업무 만족도, 인적 만족도, 시설 만족도

<표> A 기관 5개 지방청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구분 \ 조사항목		업무 만족도	인적 만족도	시설 만족도
전체		4.12	4.29	4.20
성 별	남자	4.07	4.33	4.19
	여자	4.15	4.27	4.20
연 령 대	30세 미만	3.82	3.83	3.70
	30세 이상 40세 미만	3.97	4.18	4.25
	40세 이상 50세 미만	4.17	4.39	4.19
	50세 이상	4.48	4.56	4.37
지 방 청	경인청	4.35	4.48	4.30
	동북청	4.20	4.39	4.28
	호남청	4.00	4.03	4.04
	동남청	4.19	4.39	4.30
	충청청	3.73	4.16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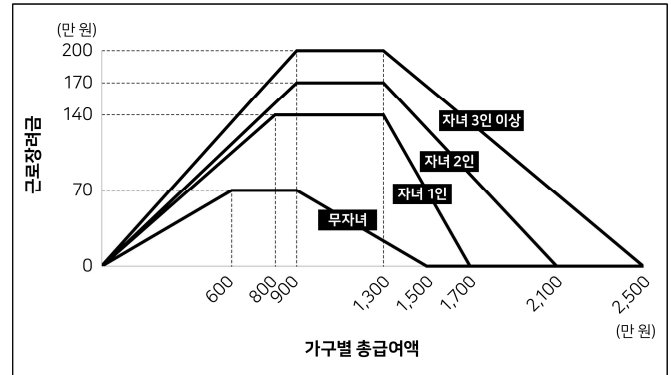
※ 1) 주어진 점수는 응답자의 조사항목별 만족도의 평균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5점 만점).

2) 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① 모든 연령대에서 '업무 만족도'보다 '인적 만족도'가 높다.
- ② '업무 만족도'가 높은 지방청일수록 '인적 만족도'도 높다.
- ③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업무 만족도'와 '인적 만족도'가 모두 높다.
- ④ '업무 만족도', '인적 만족도', '시설 만족도'의 합이 가장 큰 지방청은 경인청이다.
- ⑤ 남자 응답자보다 여자 응답자가 많다.

문 23. 다음 <그림>은 2019년 '갑'국의 가구별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2019년 가구별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 2019년 가구별 근로장려금은 2018년 가구별 자녀수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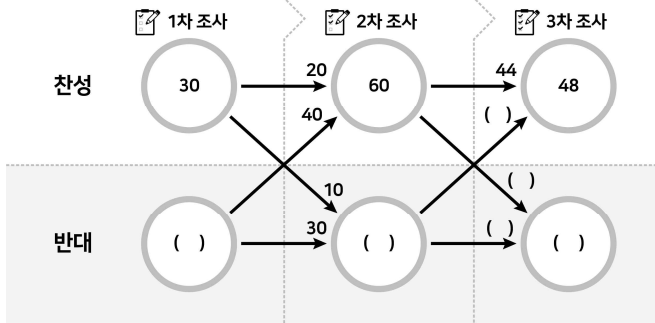
—<보 기>—

- ㄱ. 2018년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은 140만 원이다.
- ㄴ. 2018년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하인 무자녀 가구는 2018년 총급여액이 많을수록 2019년 근로장려금도 많다.
- ㄷ. 2018년 총급여액이 2,200만 원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은 2018년 총급여액이 600만 원 이고 자녀가 1명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보다 적다.
- ㄹ. 2018년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인 가구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2019년 근로장려금도 많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 24. 다음 <그림>은 ‘갑’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육교 설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3차례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갑’지역 육교 설치에 대한 1~3차 조사 결과



※ 1) 1~3차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같고, 무응답과 복수응답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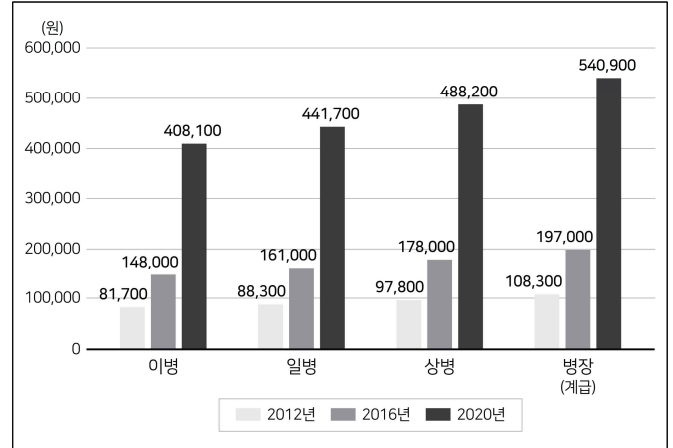
2) 예를 들어, 찬성 30 → 찬성 20 은 1차 조사에서 찬성한다고

응답한 30명 중 20명이 2차 조사에서도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2차 조사에서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60명임을 의미함.

- ① 3차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130명 이상이다.
- ② 2차 조사에서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3차 조사에서도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2명이다.
- ③ 2차 조사에서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3차 조사에서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명이다.
- ④ 1차 조사에서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3차 조사에서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5명 이상이다.
- ⑤ 1~3차 조사에서 한 번도 의견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30명 이상이다.

문 25. 다음 <그림>과 <표>는 조사연도별 ‘갑’국 병사의 계급별 월급과 군내매점에서 판매하는 주요품목 가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조사연도별 병사의 계급별 월급



<표> 조사연도별 군내매점 주요품목 가격
(단위: 원/개)

조사연도 \ 품목	캔커피	단팥빵	햄버거
2012	250	600	2,400
2016	300	1,000	2,800
2020	500	1,400	3,500

- ① 이병 월급은 2020년이 2012년보다 500 % 이상 증액되었다.
- ② 2012년 대비 2016년 상병 월급 증가율은 2016년 대비 2020년 상병 월급 증가율보다 더 높다.
- ③ 군내매점 주요품목 각각의 2012년 대비 2016년 가격인상률은 2016년 대비 2020년 가격인상률보다 낮다.
- ④ 일병이 한 달 월급만을 사용하여 군내매점에서 해당 연도 가격으로 140개의 단팥빵을 구매하고 남은 금액은 2016년이 2012년보다 15,000원 이상 더 많다.
- ⑤ 병장이 한 달 월급만을 사용하여 군내매점에서 해당 연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햄버거의 최대 개수는 2020년이 2012년의 3배 이하이다.